

일상이 된 공포, 출구 없는 지옥

—OCN <타인은 지옥이다>를 중심으로

백소연*

<차례>

1. 머리말
2. 주거권의 박탈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
3. 공포의 일상화와 사라진 유대
4. “에텐”의 파괴와 출구 없는 지옥
5. 맺음말

국문초록

OCN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는 작품성 및 대중성에서 이미 검증된 동명의 웹툰을 그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영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또한 안정적 극본은 물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다양한 연출적 시도 등을 보여주며 방영 후에도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타인은 지옥이다>는 OCN의 “웹메이드 장르물”의 계보를 잇는 듯 보이지만 이 작품은 살인의 동기를 파헤치고 범인을 색출하여 징치하는 과정 보다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저지할 수 없는 무차별적 살인의 과정 자체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점을 지닌다. 특히 웹툰에서의 캐릭터와 서사상의 공백을 당대 한국 사회의 현실 문제와 연관 지으면서 극적 개연성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판 의식은 어떠한 적극적 의지나 희망적 전망으로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오히려 세계 안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연대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운명의 인간에게 “타인은 지옥”이란 인식 그 자체는 결국 인간의 운명 자체가 영원히 지옥 안에 포박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현실의 구체적 문제가 어떤 형태로 폭로된다 하더라도 인간 보편의 실존적 문제 하에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은닉될 위험을 안고 있다. 더 이상 “우리”를 꿈꾸지 못하며 “좋은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국가, 권력,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도리어 그 무엇도 개선할 수 없다는 절망적 전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타인은 지옥이다>의 진정한 잔혹함이 시작된다고 할 것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조교수

이다.

주제어 : <타인은 지옥이다>, 텔레비전드라마, OCN, 웹툰, 타인, 일상의 공포, 출구 없는 지옥

1. 머리말

OCN의 <타인은 지옥이다>(2019.08.31.~2019.10.06. 총 10부작)는 네이버에 연재된 동명의 원작 웹툰¹⁾을 드라마화한 작품이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제목의 문구는 사르트르의 희곡 「닫힌 방」의 대사 일부를 인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²⁾ 이 희곡이 출구 없는 방에서 낯선 세 사람이 공존하는 것 자체가 지옥인 상황을 그려낸다면, 웹툰은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라는 이 실존적 명제를 바탕으로 고시원에서 벌어지는 인간들 사이의 끔찍한 반목에 주목하고 있다.³⁾

누적 조회수 9억 뷰를 기록하기도 한 김용키의 웹툰은 2018년 12월 완결과 동시에 드라마화가 확정될 만큼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밖

-
- 1) 김용키, <타인은 지옥이다>, 《네이버》, 2018.03.10.~2018.12.26. 완결 / 김용키, 『타인은 지옥이다』 1~3, 위즈덤하우스, 2019.
 - 2) “타인은 지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대목은 다음의 대사 부분이다. (장 폴 사르트르, 지영래 역, 『닫힌 방, 악마와 선한 신』, 민음사, 2013, 82면.)
가르생 : 청동상.....(그가 그것을 쓰다듬는다) 그래, 이제 때가 됐군. 청동상이 여기 있고,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고 난 내가 지옥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겠어. 당신들에게 말하지만 모든 것이 예견되어 있었어. 그들은 내가 이 벽난로 앞에서 손으로 이 청동상을 쥐고서 모든 시선을 받고 서 있을 걸 예견했던 거야. 나를 잡아먹는 이 모든 시선들을.....(그가 갑자기 뒤돌아선다.) 이런! 당신들 둘밖에 안 돼? 난 당신들이 훨씬 많은 줄 알았지 뭐야. (그가 웃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당신들도 생각나지, 유행불, 장작불, 석쇠.....아! 정말 웃기는군.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 3) 웹툰 작가 김용키는 2012년 상경했을 당시 은평구 고시원에 거주했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 웹툰을 구상했으며, 한정된 장소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주는 무력함, 공포와 스트레스를 적나라한 방법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키, <타인은 지옥이다> 후기, 《네이버》, 2019.01.12.)

고, 귀엽고, 경쾌한 것이 주류인 웹툰 시장에서 어둡고, 녹록하고 무기력한 것"을 내세워 한국의 "데카당스 웹툰 시대"를 열었다는 호평을 받으며⁴⁾ 2019 대한민국콘텐츠 대상 만화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충분히 검증된 원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이미 드라마는 방영되기 전부터 큰 화제를 불렀다. 특히 웹툰이 드라마화 될 때마다 원작과의 싱크로율은 가장 큰 논란이 되어 왔지만 <타인은 지옥이다>의 경우, 원작자와 시청자는 물론, 당시 관련 보도 모두 캐스팅 자체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다.

나아가 원작과 다르게 해석되고 추가된 내용들은 캐릭터와 상황 설정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만들면서 비정규직과 도시 빈민 문제, 사회 안전망의 부재 등 당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디테일하게 반영해냈다. 물론 지나치게 잔혹하고 자극적인 장면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원작에 첨가된 디테일과 긴박한 전개,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다양한 연출적 시도 등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으며 동시간대 비지상과 시청률 1위를 기록하였다.⁵⁾

결과적으로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는 OCN이 그간 꾸준히 시도해 온 "웰메이드 장르물"의 명맥을 잇는 것으로 회자되었지만 사실 그 면면을 들여다볼 때 이 작품은 전에 방영되어 온 "장르물"들과는 분명 뚜렷한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각종 범죄, 특히 연쇄 살인을 소재로 한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들은 살인의 동기를 파헤치고 범인을 찾아내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극악무도한 살인을 정의로운 자들의 힘으로 저지하는 데에 서사

4) <인터뷰 만화가 김용기 "조심 안 하면 나도 남에게 지옥이 될 수 있다">, 《매일경제》, 2019.09.29.

5)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는 VOD 매출과 콘텐츠 영향력 지수 등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압도적인 화제성과 영향력을 증명했다. 그러나 첫 방송이 기록했던 3.8%의 시청률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최종화에서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하였다. 잔인한 장면이 다수 등장하여 마니아 외의 시청층을 끌어들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SC초점] 화제성 ↑vs시청률 ↓...마니아 저격 '타인은 지옥이다'의 달레마)>, 《스포츠조선》, 2019.09.16.)

의 목적을 두었다. 설사 그것이 완벽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다음 시즌을 예고하는 차원에서의 일시적 봉합 혹은 유보된 해피엔딩 정도는 암묵적으로 보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저지할 수 없는 살인의 과정 자체를 강조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웹툰이 지닌 서사적 공백을 사회구조적 한계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채워 넣었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누구든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지속적 불안, 고통과 죽음의 적나라한 순간 그 자체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마치 이상 성격의 연쇄살인마가 사람들을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죽여 나가는 슬래셔무비(Slasher Movie)⁶⁾처럼 고문, 살인 등의 구체적 행위들이 화면 위에 나열되면서,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의 잔혹함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질감마저 던져준다. 그러기에 이 작품에 대한 혹평 대부분도 이처럼 여과 없이 노출되는 잔혹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선의를 가진 자도 무고한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진범의 실체 역시 끝내 밝힐 수 없다는 결말은, 이처럼 끊임없이 나열되는 잔인함과 더불어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극도의 절망적인 전망과 상통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에 나타난 불안과 공포의 요소에 분석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지옥에 마침내 도달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의 구체적 문제가 드라마 상에 노출되었다가 도리어 은닉되는 과정을 밝히려 한다. 즉 더 이상 “우리”를 꿈꾸지 못하며 “좋은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국가, 권력,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이 서로에게 영영 지옥일 수밖에

6) 슬래셔 영화는 끔찍한 살인마가 등장하는 공포 영화의 하위 장르로, 일명 난도질 영화라 한다. 슬래셔(slasher)라는 용어 자체가 칼로 난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슬래시(slash)에서 유래한 만큼 피가 튀는 잔인한 장면이 그득하다. 존 카펜터 감독의 <할로윈> 이후 이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며 1990년대 말 <스크립>의 대대적 히트로 슬래셔 영화 붐이 다시 일기도 했으나 한국에서 제작된 유사 슬래셔 영화들은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김광철·장병원 엮음, 『영화사전』, media2.0, 2004, 214-215면.)

없다는 보편 명제로 환원되는 한계에 대해 주목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드라마의 시선은 당대 시청자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극명히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2. 주거권의 박탈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

2018년 한국을 방문한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UN) 인권이사회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행동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고시원이나 쪽방 처럼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⁷⁾ 이처럼 고시원은 한국 사회의 열악한 주거 환경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원래 고시원은 수험생의 학습 장소였던 독서실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학원 밀집가나 대학 인근의 고시 준비생들의 취침용 방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이 늘면서 고시 준비생이 아닌 일반 저소득층들이 고시원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고시원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고시 공부방이 아닌 거주 목적의 공간으로 변모하였음에도 오랜 시간 고시원은 비주거주택지로 분류되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 결과, 고시원은 최저 거주요건이나 소방 및 방재 관련 등의 안전 기준조차 갖추지 않은 채 불법 개조를 통해 대량 공급되어 왔다.⁸⁾

2002년에야 서울시 건의로 고시원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⁹⁾

7) <유엔 특보 "한국 정부, 주거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식해야">, 《연합뉴스》, 2018.05.23.

8) 진미윤·최상희, 「고시원의 공급, 운영관리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주택연구』Vol.28 No.3, 한국주택학회, 2018.

2000년대에만도 여러 건의 고시원 화재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인명피해가 이어졌으며 가장 최근인 2018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참사에서는 7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화재 사건들은 안전에 취약한 주거공간의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 명백한 인재(人災)였다.¹⁰⁾

서울시가 연구용역한 ‘서울시 고시원 보고서-거처 상태 및 거주 가구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는 총 5807개 고시원이 영업 중이며 서울에서만 약 15만 5379명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원 중 전용면적 7㎡(약 1~2평) 미만인 방의 비율은 57.7%에 이르며 공용 주방과 화장실이 기본인 이곳에서 평균 9명이 번기 하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다.¹¹⁾ 레일라니 파르하 UN 특별보고관이 고시원과 쪽방촌,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인구를 홈리스에 포함하여 추정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¹²⁾

원작인 웹툰에서는 주인공 윤종우가 예뎨고시원에 들어오면서 그 내용이 시작되지만 드라마는 원작에 누락된, 그가 왜 여기에 올 수밖에 없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대학 선배 신재호로부터 인턴 자리를 제안 받은 윤종우는 서울에 상경하여 적당한 거처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고시원을 전전한다. 사실 고시원이라는 공간은 소형의 저렴한 주거형태이지만

-
- 9) <고시원은 어떻게 대도시 ‘최후의 주거지’로 변해갔을까>, 《경향신문》 2018.11.11.
 10) 많은 연구자들이 향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으로는 온갖 종류의 예외상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예외상태에서 취약계층은 그들의 생명을 언제든지 위협받는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2009), 그리고 국일고시원(2018) 화재가 그 예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고시원은 주거의 종류가 아니면서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인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열악한 주거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비주택으로서 고시원은 최저주거기준에서 예외상태로 남아있다.” (이봉조, 「최저주거기준과 예외상태에서의 생명권 박탈」, 『도시와 빈곤』 116호, 한국도시연구소, 2020, 10-11면.)
 11) <[2020 고시원 탐사기][단독]①강남엔 백배원, 영등포엔 외국인...‘서울 고시원 지도’>, 《경향신문》, 2020.10.07.
 12) <유엔 특보 “한국 홈리스 26만 추정…주거안정 대책 마련해야”>, 《MBC》, 2019.03.12.

그 물리적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빈곤하고 열악한 거처인 쪽방의 형태에서부터 최근에는 좋은 시설을 갖춘 고가의 고시원까지 등장하였다. 부정적인 이미지 변신을 위해 그 명칭 또한 고시텔, 리빙텔, 원룸텔, 미니텔, ~텔, ~빌, ~하우스 등으로 다양하게 변모되었다.¹³⁾ 윤종우가 더 저렴한 입주비용을 찾아 돌아다니는 동안 가격대에 따른, 이러한 여러 고시원의 모습들이 순차적으로 화면 위에 나열된다.

그러나 마침내 찾아낸 에덴 고시원은 보는 순간, 뒷걸음질 칠 만큼 낙후되어 있다. 고시원에 가기 위해서는 가파른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야 하고 그 내부의 일부는 이미 한 차례의 화재로 망가져 있었다. 화재 이후 폐쇄된 4층은 최소한의 수리조차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남성 전용층인 3층은 물리적으로 협소한 공간뿐 아니라 환기나 채광, 소음, 위생 등에서 매우 열악하여 쪽방촌의 환경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형과 시장에서 일하는 홀어머니를 둔, 비정규직 인턴 윤종우에게 주거 자체에 대한 선택권은 애초에 봉쇄된 듯 보인다. 고시원 주인 엄복순이 과장되듯 강조하는 19만 원의 월세란 서울에서 보기 드문 저렴한 주거 부담 비용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고시원 거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그 문제가 개인의 선택권 밖에 존재함을 방증한다. 살인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가해자 그룹을 제외한다면¹⁴⁾ 에덴 고시원 거주민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도시빈곤층의 전형이다. 그런데 이들의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게 되기까지의 복잡한 개인사로 인해 에덴 고시원 거주민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고립

13) 진미윤·최상희, 앞의 글, 12면.

14) 가해자 그룹 역시 보육원 출신으로 원 가족이 존재하지 않거나(변득수, 변득중) 조선족 출신으로 성범죄 등의 전력을 지니고 있는 등(홍남복) 사회관계가 단절된 채 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서문조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다 할 것이다.

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웹툰에서 누락된 각 인물의 개인사들은 드라마 안에서 재창조되며 범죄의 은닉 과정에 대한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서문조에 포섭되어 살인을 저질러 왔던 유기혁은 에텐 고시원 입주 당시 사업이 망하고 지인들마저 등을 돌린 상태였으며 강석윤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후 음악을 하기 위해 연고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청년이다. 얼굴의 칼자국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친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안희중 또한 고향을 뜬 이후 딱히 누구와 개인적 연락을 주고받는 기색이 없다. 이들 모두 어느 날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다 해도 크게 문제삼을 주변 인간관계가 부재하다시피 한 것이다. 윤종우가 고시원에 입주한 직후 살해된 외국인 노동자 쿠마일도 이와 비슷하다. 제3세계에서 온 쿠마일의 실종에 대해 의문을 품고 수소문하는 사람은 한국말조차 어눌한 그의 외국인 아내가 유일하다. 하지만 경찰서의 수많은 실종 전단 속에 묻혀 있던 쿠마일의 사진이나 파출소 주변을 하염없이 맴돌며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처럼, 그들의 실종 사건은 좀처럼 표면화되지 못한다. 살해를 주도하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앞에 두고 반복적으로 조롱하며 강조하는 사실 역시 고시원에서는 누구도 찾지 않는다는 점이다.¹⁵⁾

15) 고시원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원은 이 드라마의 상황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남기기도 하였다. “직접 찾아갔던 고시원 중 한 곳은 낮에 찾아갔는데 불이 다 꺼져있었다. 그 고시원에 살고 있던 관리인의 소개로 다른 방들을 둘러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 터운 한낮에 불 꺼진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생활급유를 수급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 고시원은 상가건물의 위층에 위치했고, 바로 밑에는 PC방이 있어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대로 들릴 정도였다. 화장실도 성별 구분이 전혀 없는 데다 상가건물과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샤워까지 해결해야 했다. 현관문에 잠금장치도 없어서 외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가 보여주는 정도,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도 전혀 모를 만큼의 음침한 분위기도 풍겼다. 실제로 다른 고시원을 찾아갔을 때 만난 두 사람은 이전에 살던 고시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치되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 고시원에 30~40명이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다. 극단적으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환

변득중 : 아저씨, 고시원의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여기서 누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1부)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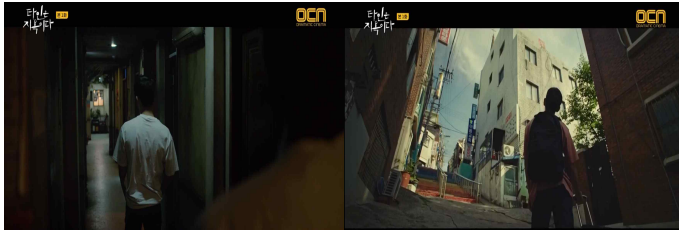
서문조 : 그거 알아요? 고시원엔 세 가지가 없어요. 고시생이 없고 햇볕이 없고 뭐 우릴 찾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릴 찾는 사람이 있게 만들어 버렸네. 그건 고시원 규칙 위반인데 조심 좀 했어야죠.(3부)

한편, 에텐 고시원의 내부만이 아니라 그 주변 역시 범죄에 취약한 공간으로 추정된다. 범죄취약지역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데, 이러한 지역들은 주로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으며 거주 인구 밀도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골목길의 비중이 높고 방범용 CCTV와 가로등, 야간 조명 등이 부족하여 시야 확보가 불량한 지역이 많다.¹⁷⁾ 에텐 고시원 건물 역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주변은 좁고 경사진 골목길이 많아 이러한 위험 요소를 다수 가지고 있다. 에텐 고시원 내부(장면 1)와 고시원에 이르는 외부의 풍경(장면 2, 3)은 마치 “다시는 빠져나올지 못할 긴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주로 좁고 길며 어둡고 대낮에조차 적막한 느낌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경에 놓인 것이다.” 「고시원,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방’」, 『월간복지동향』243,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9, 45면.

16) <타인은 지옥이다>는 드라마 종영 이후 대본집이 발간되었다. (정이도, 『타인은 지옥이다 대본집』, 위즈덤하우스, 2019) 그러나 텔레비전드라마 방영분에는 대사상 표현상 차이가 다소 존재하며 특정 대화는 누락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방영된 대사를 기준으로 인용하였다.

17) 신상영·조권중, 「서울의 범죄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정책리포트』161, 서울연구원, 2014, 10-14면.



장면 1

장면 2



장면 3

열 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연속해서 잔인하게 살해되어 버려졌지만 골목에는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적할 만한 단서를 찾기 어렵다. 안희중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차성렬 형사가 그리 늦지 않은 저녁 시간 자신의 차 안에서 유기혁에게 버젓이 살해되고 다시 서문조에게 그 유기혁이 연이어 살해지는 장면은 범죄를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방법등이나 CCTV 등이 에덴 고시원 주변에 존재하지 않음을 역설한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할 구청이나 경찰서 역시 이러한 치안상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3개월 전 펜션 살인 사건이 고양이 연쇄 살해로 시작되었고 에덴 고시원 주변에서 고양이의 사체가 거듭 발견되며 여러 건의 실종 사고가 발생했지만 살인을 포착하고 저지해야 할 공권력은 좀처럼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소정화 네, 고양이요...

박수복 고양이 시체?

정화 예, 한달 사이에 벌써 열 번째예요...

박수복 아...도대체 누가 이르는 거냐?

정화 봐 여기 CCTV가 없잖아...분명히 이 동네 잘 아는 사람이
라니까요...

박수복 아 그럴 수도 있고,

대학생 그러니까 CCTV를 좀 달아달라니까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박수복 아니 그건 저희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구청 가서 민원 넣
으세요, 민원. 이런 쓰레기 같은 건 구청 청소과에 전화하
서 갖고 해결하셔야 하고요...

대학생 아저씨! 그게 경찰이 할 소리에요? (1부)

이 고시원에서 누가 죽는다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조소하듯 피해자를 살해하는 흉남복, 변덕종의 모습과 죽은 고양이의 사체를 발견하고 화를 내는 인근 주민 여성의 모습 등은 1부에서 연달아 이어진다. 결국 에덴 고시원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 그 내부의 존재들은 사회 안전망 밖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예외 상태에서 생명권은 언제든지 박탈될 위협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범인이 눈앞에 있음에도 알아채지 못하거나 동료 형사가 살해된 상황인데도 문제에 대해 인식조차 못하는 경찰들의 모습은 연이어 등장하는 살해 장면들과 대비되며 공권력의 무능함을 넘어 특정 지역에 대한 의도적 방치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3. 사라진 유대, 공포의 일상화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주인공 윤종우가 의지할 만한 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드라마의 제목처럼 그에게 타인은 단지 지옥에 불과하다.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마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적대하고 이용하며 서로의 고통을 방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도착한 종우의 노트북 액정을 망가뜨리고 무책임하게 가 버린 남자나 저렴하게 수리해 주는 척 바가지를 씌우던 노트북 수리기사들의 모습은 그러한 지옥의 서막을 예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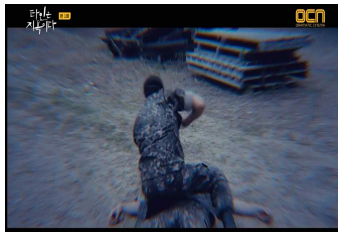
술집 앞에서 벌어진 1화의 싸움 장면은 타인과의 유대가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도시의 비정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싸우는 사람을 보고도 그 누구 하나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은 웹툰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웹툰 원작에서는 재호와 종우가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방관하다가 결국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귀찮은 일에 휘말릴까 황급히 자리를 뜨는 장면이 그려진다.

드라마 역시 유흥가에서 벌어진 싸움을 그저 구경만 하는 여러 사람들과 신고하려던 종우를 말리던 재호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다.(장면 4) 그러나 원작과 달리 드라마에서의 종우는 군대 시절 고참 병장과의 일화를 떠올리면서 싸움에 충동적으로 끼어든다.(장면 5, 6) 그리고 결과적으로 폭행 피해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타인에 대해 종우가 갖는 책임의식이나 연대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종우 내부의 트라우마와 내재된 폭력성, 충동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종우는 지극히 충동적으로 타인을 향해 공격성을 보이게 된다.



장면 4

장면 5



장면 6

종우는 타인이 위협에 빠졌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도 외면하여 그들의 살해를 방조한다. 갑자기 떠나 버린 안희중의 행적에 의심을 품으면서도 그는 이 일을 지나쳐 버린다. 석윤이 자신의 방에서 안희중의 지갑을 발견하고 신고하려 하자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며 만류하기까지 한다.(7부) 또한 차성렬 형사가 살해되던 당시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면서도 그냥 돌아서고(2부) 살인마들에게 붙잡힌 석윤의 석연치 않은 태도를 느끼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떠나 버린다. 석윤은 살아남기 위해 종우를 계속 붙잡지만 종우가 떠나가자 서문조는 “거봐요,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 결국은 남이지”(9부)라는 말로 조롱하며 그를 끝내 살해하고 만다. 그러나 종우의 이러한 방관자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는 마치 부메랑과도 같이 자신에게로 되 돌아온다.

종우의 주변인들 역시 공포에 질린 그가 고통을 토로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예민함으로 치부하며 외면해 버린다. 선배인 재호는 고시원 생활

을 위로해 주는 척 모멸감을 주고 애인인 지은은 종우의 예민함을 지적하면서 그의 고통을 바로 보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오빠...결만 정상이지,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 6부) 또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역시 음주 후 장난 전화 정도로 취급받는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그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어하려 든다. 하지만 불안감에 찬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편의점에서 칼을 구입하여 소지하거나 서문조의 추적을 피해 일시적으로 고시원에서 벗어나는 정도이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상당한 완력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안희중이 칼로 무장한 상태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사실은, 동시에 이러한 자기방어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보여준다. 또한 종우의 행적을 따라 출몰하며 지인들에게까지 수시로 접근하는 서문조의 행동은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돌출적이다. 게다가 차성렬, 신재호 등처럼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공격과 살해의 위협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증명한다. 일상에서 느끼는 공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소정화, 박창현의 행위가 보여주듯, 심지어 조건 없는 선의조차 살인을 저지할 수 없고 도리어 타인에 대한 이타적 태도가 공격 대상이 될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는 타인과의 연대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되지 못함을 역설한다.

고시원의 이상한 기류 안에서 종우의 정신 상태가 점점 불안해지듯,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속에는 그러한 속수무책의 불안과 긴장, 공포감이 시종일관 맴돌고 있다. 매화의 첫 시작은 이러한 분위기를 적극 반영한다. 에덴 고시원의 살인마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는 인트로 영상에서 가운데에 있는 엄복순의 좌우로 홍남복, 유기혁이 소리 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변덕증은 다시 그 뒤에서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한 듯 점프컷을 통해 갑자기 화면 위에 출몰한다. 배경음으로 깔리는 낮고 음산한 음향은

한껏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짧은 장면은 마치 도처에 위험이 존재하며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그의 저서『유동하는 공포』에서 확실성과 안전성이 사라진 우리 시대에는 일상을 위협하는 불확실하며 다양한 공포가 존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2장에서는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에게서 “악의 평범성”을 발견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악의 불가항력이 자아내는 공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깨달음이 낳은 결과 중 가장 파급력이 있으며 어쩌면 가장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결과는 현대의 ‘신뢰성 위기’다. 악이 도처에 숨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악인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뚜렷이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두드러진 특징도 없고, 별도의 신분중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악의 군단의 예비군으로서 언제든지 그 군대에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물론 그런 시각은 대체로 과장이라 하겠다. 분명 모든 사람이 악의 종자로서 일할 수 있지는 않고 일하려 하지도 않는다.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을 혐오하며 악의 유혹 또는 협박에 감연히 맞서 싸울 사람들은 틀림없이 많이 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사람인지, 또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 즉 악의 계략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게 요점이다.¹⁸⁾

“악이 도처에 숨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만다는 말처럼, 고시원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친밀감을 느꼈던 석윤에게조차 중우는 어쩌면 한 패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완벽히 떨치지 못한다. 또한 여자

18)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009, 116면.

친구인 지옥에게서는 서문조의 환영을 보고 칼을 겨누기까지 한다. “지옥은 고시원이나 회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7부) 그 자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서울에 올라온 첫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기사가 이야기 하던 성악설과 타인은 지옥이라는 경구는 종우의 어머니가 상경하는 종우에게 신신당부하던 말,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와 일맥상통한다. 고시원 여주인 엄복순이 살의를 띤 미소를 보이며 우리 고시원엔 좋은 사람만 남아 있다고 재차 강조하지만 그 좋은 사람들이란 모두 살인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청자 또한 알고 있기에 그 말은 도리어 타인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역설한다. 즉 타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과 운명이 공포 그 자체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한 것은, 타인에게서 끝없는 공포를 느끼는 종우 자신도 또 다른 타인에게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타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갈수록 종우는 폭력적이고 살의에 찬 인물로 변해간다. 그는 피시방에서 만난 고등학생, 회사 사수인 선배 병민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무자비로 폭행한다. 그리고 과거 군대에서 조병장을 폭행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을 자극해 온 모든 타인들을 분노로 연결 짓는다. 문제는 그러한 충동적 행위 자체를 전혀 후회하지 않고 더욱 깊은 살의를 표출한다는 사실에 있다. 공원에 앉아 있던 종우가 내뱉는 혼잣말에는 살기가 느껴지며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게 된다.(8부) 종우에게 타인이 그러하였듯, 다른 타인에게는 그 역시 지옥에 불과한 타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바우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타인은 지옥이다> 속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실존적 불안의 원천”이며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세계 역시 “덧없고 매복으로 가득한 적지”에 불과하다.

...근대인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이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이 내놓도록 권고 받고 훈련받은 정도의 진실

성 없는 동정과 협동심, 그 이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사회에서는 인간 동료를 실존적 불안의 원천으로 보고, 덧과 매복으로 가득한 적지(赤地)로 보는 태도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인의 태도가 인간적 유대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그런 약화가 일어나도록 한 공포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다.¹⁹⁾

물론 이 드라마에는 인간에 대한 선의를 가진 소정화 같은 인물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타인이 지옥이라면, 다시 타인이 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걸게 만드는 인물인 것이다. 정화의 할머니 또한 인간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강조하며 따뜻한 메시지를 그녀에게 건네기도 한다.

소정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흐음.. 좋은 사람ियो, 한없이 좋기만 한 사람ियो.
 소정화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한없이 좋기만 해요?
 할머니 우리 남편이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기만 하면 내가 믿은 것만큼, 아니 그 보다 더 많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6부)

그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소정화 순경 할아버지의 말씀은 “한없이 좋기만 한 사람”이었던, 그러나 이미 이 세상에 현존하지 않는 인물이 과거를 진단한 것에 불과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하는 할머니 역시 치매에 걸려 사리 판단이 어려워며 외부 세계와도 의식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는 타인이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세계란 과거에 존재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을 더욱 역설하는 장면이라 할 것이다.

19)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217면.

4. “에덴”의 파괴와 출구 없는 지옥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고시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에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한 차례의 화재로 망가진 것뿐만 아니라 낡고 열악한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에덴”의 이름을 조롱하듯 세워진 지옥을 연상케 한다. 특히 고시원의 여주인인 엄복순은 보육원 원장으로 기독교인의 행세를 하며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척했지만 자신이 운영하던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서문조를 비롯하여 변득중, 변득수를 연쇄살인에 가담시켰다는 점에서 이 지옥의 명실상부한 수장이다.

물론 원작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 소정화 순경의 등장은 이러한 지옥을 파괴하고 진정한 “에덴”을 세울 수 있는 희망을 암시하기도 한다. 소정화는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타인의 일에 진정성 있게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동료 경찰들과 달리, 고시원 주변에서 이상한 징후를 느끼자 따로 시간을 내어 사건을 수사해 간다.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고 징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야²⁰⁾ 소정화는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냥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경찰 내부 업무의 위계 안에서 수시로 좌절당한다. 차성렬 형사의 연락 두절을 수상히 여겨서 파출소 선배들에게도 문제를 제기하고 형사과에 지속적으로 연락도 해 보지만 관할 구역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번 거절되거나 외면 받는다.²¹⁾

20) 형사 출신인 아버지와 국과수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동료들 통해 소정화는 수사에 도움을 받는다.

21) 심지어 소정화가 결정적 증거물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형사들은 이를 조소하는 기색을 내비치며 외면한다. (8부) 드라마 방영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본집에 따르면 소정화가 전달한 증거물에 대해 확인도 안 한 채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결국 이후의 살인을 막을 또 한 번의 기회가 좌절된 것이다.

박수복 야, 정화야. 봐봐라. 이 지구대라는 게 애초에 초동 조치하
는 데지 수사하는 데가 아니거든. 수사하려고 경찰 된 거
면 정신 차리자. 월권하지 말고 그냥 네 일이나 해, 네 일.
...(중략)...

정화 ...그리고요 수사하고 싶어서 경찰 된 거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그래서 된 겁니다. (4부)

윤중우의 군대 후임이었던 창현 역시 소정화와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한 종우를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자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자신을 잘 보살펴 줬던 군대 선임 종우에 대해 창현은 마음 깊이 고마움을 지니고 있다. 그는 종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경청하며 종우 주변의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고시원의 진실을 믿어준다. 또한 종우가 뿌리치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와 함께 고시원에 들어가기를 자청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옥”이 몇몇의 선한 존재들에 의해 구원되지 못하며, 심지어 이곳에 갇히는 순간 그들마저 출구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다는 데에 있다.

창현은 종우를 따라 용감하게 고시원에 들어가지만 엄복순이 제조한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는다. 그리고 한 번 제대로 맞서 보지도 못한 채 무참히 살해당한 채 이 지옥에 버려진다. 공권력의 선한 대리자였던 소정화는 혈혈단신으로 고시원에 들어가지만 엄복순의 공격으로 정신을 잃은 채 지하에 감금된다. 창현과 달리 홍남복의 전자발찌를 파손해 겨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고시원에서 벌어진 살육을 저지하지 못했고 그날 밤의 실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었으면서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이광재 : 살인 사건이라는 둥 증거가 있다는 둥, 헛소리하지 뭐. 요즘 드라마랑 영화 때문에 개나 소나 형사놀이 한다니까. 지가 뭘 안다고 설쳐, 민원처리나 잘할 것이지.” (정 이도, 앞의 책, 370면.)

무엇보다 <타인은 지옥이다>가 가장 절망적인 것은, 지옥의 실체가 폭로되고 그 안의 악마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아도 결국 윤종우를 통해 살의가 그대로 보존되어 우리의 세계 안에 잔존한다는 점에 있다. 사실 윤종우 내부에 간직된 폭력성에 대한 암시는 극의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윤종우는 서울에 상경하기 전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다. 그러나 고시원에 살게 되면서 그는 자기 안의 악마성과 본격적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윤종우는 카프카의 『변신』을 들고 상경하였으며 그가 모든 살인을 끝낸 후 병실에 앉아 있던 순간, 곁에 놓여있던 책도 『변신』이었다. 웹툰 원작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 책은 드라마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의도적으로 화면 위에 노출된다. 심지어 서문조는 종우의 방에서 가져온 이 책을 홀로 낭독하기까지 한다.

소설 『변신』에 등장하는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해충으로 변한다. 그 후 그는 가족들과 소통하지 못한 채 결국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그레고르 잠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가족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기보다 도리어 안도한다. 진정한 소통이 부재한 가족의 상황과 비인간적인 면모는 바로 주인공의 “변신”을 통해서야 폭로되는 것이다. 이 드라마 안에서도 지옥과도 같은 세계 역시 윤종우가 살인마로 변하는 과정 속에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낸다. 이 점에서 소설 『변신』은 드라마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는 매우 상징적인 장치라 하겠다.

서문조는 윤종우와 처음 대화를 나누던 순간부터 그에게 깊은 호감을 표현한 바 있다. 종우가 고시원에 들어오게 된 얼마 후, 서문조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유기혁을 “아저씨는 역시 실패작”이라 말하며 살해한다. 에덴 보육원 출신으로 이루어진 원래의 살인자 그룹과 달리, 유기혁은 고시원에 입주하였다가 서문조를 만나 거기에 합류하게 된 인물이다. 그러한 유기혁이 제거된 장면 이후, 서문조가 종우에게 호감을 표시한다는 것은 결국 유기혁의 자리가 종우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후

에도 서문조는 윤종우를 따라다니고 위협에 처한 종우를 구하거나 종우에게 모욕을 주던 선배 신재호를 충동적으로 살해하기까지 한다. 그것은 서문조의 시선에서 종우가 바로 또 다른 자아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윤종우 근데 아까부터 아저씨는 왜 절 보고 웃으시는 거죠?
 서문조 아...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윤종우 아니요,
 서문조 그냥, 좋아서요.
 윤종우 예?
 서문조 그쪽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도 나랑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2부)

고시원에 들어온 이후 종우는 심리적 불안과 엄복순이 준 약물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각, 환청, 악몽에 시달려 왔다. 그리고 고시원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살인에 대한 환영은 과거 군대에서의 회상과 함께 혼재되어 나타난다. 윤종우는 동물을 수시로 학대하고 살해해 온 상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었다. 물론 이는 악인에 대한 징치로서 용감하며 정의로운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우는 상대를 제압하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더 많은 쾌감을 느끼는 듯 보인다. 피시방에서 만난 고등학생이나 회사 선배인 병민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드러난 악의적 미소는 서문조가 말하는 “나랑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서 종우가 갖는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 고시원 일당을 전부 살해한 사람이 결국 서문조가 아닌, 윤종우였다는 반전이야말로 종우의 진면모가 폭로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서문조가 종우를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종우의 본성을 간파하여 자극하고 일깨운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10부의 제목처럼, 서문조는 윤종우를 “가스라이팅”한 것이다.

윤중우 너만 죽으면 이 지옥도 이제 다 끝나는 거니까. 너도 한번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 봐. 이 악마 새끼야.
서문조 역시 자기는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에요.(1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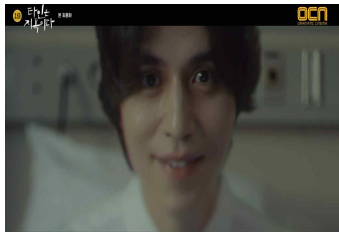
그런데 서문조가 과연 죽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드라마상으로 매우 모호하게 처리된다. 에덴 고시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가장 큰 배후이지만 관련 뉴스 보도가 흘러나오며 사건 수사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에도 서문조의 죽음은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다. 서문조가 운영했던 샵터 치과에 붙은 종이는 폐업이 아닌 임시 휴업을 알리고 있어 이 역시 의미심장하게 보일 뿐이다.

고시원에서의 모든 살육이 끝난 후 구급대 침대에 누운 윤중우의 눈에는 멀리 서서 그를 바라보는 서문조의 모습이 비춰지며(장면 7) 퇴원하는 소정화의 시선에도 어느 순간 서문조의 존재가 포착된 듯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살인 사건의 트라우마에서 온 환영인지, 아님 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사실 서문조의 생존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 자신을 의심하는 소정화를 태연히 돌려보낸 중우는 병원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섬뜩한 미소를 띤 채 “죽어”라는 글씨를 화면 가득 반복적으로 쳐 내려간다. 그리고 그의 얼굴 위로 서문조의 모습이 겹쳐지며 전환되는 장면은(장면 8,9), 결국 서문조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서문조가 지닌 살의가 윤중우를 통해 보존되고 있음을, 또한 그 살의는 얼마든지 잠재되어 있다가 무한복제 될 수 있음을, 그리하여 수많은 윤중우들이 존재하는 이 세계가 바로 지옥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장면 7

장면 8



장면 9

(서문조로 보여졌지만 사실은 윤종우였던) 윤종우는 변덕증을 칼로 난 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저씨는 날 절대로 못 죽여요, 웬지 알아요? 이 세상엔 내가 너무 많거든”(10부) 너무 많은 악인들이 만들어내는 지옥의 세계는 에텐 고시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러하기에 살육은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살인이 멈춰진다고 해도 타인을 향한 무차별적 악의는 여전히 이 세계 안에 보존되어 있다. 타인이 만들어낸 지옥에는 어떠한 출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살인 사건을 다루는 대개의 드라마들이 악인에 맞서는 소수에 의해서 사건이 해결되고 세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타인은 지옥이다>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세계관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방영된 10부의 부제의 첫 머리 글자를 따서 연결하면 “타인은 정말로 지옥인가”라는 질문으로 이루어진다.²²⁾ 웹툰 작가 김용키는 “역시 지옥과 천국 모두 타인에게 있다”라고 인터뷰한 바 있으나²³⁾ 결과적으로 이 드라

마는 앞서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힘을 주어 대답한다. 그리하여 이 작품의 결말은 우리 사회의 각자도생, 공도동망의 암울한 풍경만을 극단적으로 재확인시켜 줄 뿐, 그것을 돌파해 나갈 어떠한 희망도 담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지옥에서 출구를 찾으려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냉소를 보내고 있다. 불신의 팽배와 가학적 폭력이 순환되는 현실에 대한 적나라 하면서도 뼈아픈 폭로는 수위 조절이 되지 않는 자극적 장면의 연출보다 오히려 더 잔혹하게 느껴진다.

5. 맺음말

테리 이글턴은 특정 범행을 ‘악’이라고 호명하여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일상의 사회 조건을 초월하는 행동으로 규정하여 논의와 협상의 가능성을 봉쇄해 버리는 사고 형태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악이 일상의 사회 조건을 넘어선다 해도 근본적으로 불가해한 것은 아니며 선이 그러하듯 악 역시 사회적 조건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²⁴⁾

OCN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는 웹툰에서 누락되었던, 왜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가의 개연성을 보다 촘촘히 채워 넣는다. 그러나 사회적 돌봄과 주거권의 부재, 빈곤이나 공권력의 무능 등, 타인을 지옥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 나가던 드라마는 결과적으로 개선 불가능한 인간 본성과 악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귀결시

22) 10부작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의 각각의 부제는 다음과 같다. 1부 타인은 지옥이다, 2부 인간 보는, 3부 은밀한 속삭임, 4부 정신 착란, 5부 말테의 수기, 6부 로스트(LOST), 7부 지하실의 공포, 8부 옥죄는 목소리들, 9부 인지 부조화, 10부 가스라이팅(Gas-lighting)

23) <“타인은 가장 두려운 존재… 당신은 누구의 지옥인가?”>, 《조선일보》, 2018.04.27.

24) 테리 이글턴, 오수원 역, 『악-우리 시대의 악과 악한 존재들』, 이매진, 2015, 201면.

키고 만다. 성악설을 지지한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던 김용키 작가의 생각은 윤중우가 탔던 택시 기사의 토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만 (“성악설 알죠? 나는 그게 맞는 거 같거든. 아기들 보면 얼마나 잔인해. 벌레 같은 거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찢어 죽이잖아요.”¹⁾부) 정작 그러한 인간 내면의 악, 분노를 제어할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이라는 운명 안에서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라는 한정된 선택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잔혹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을 이겨내고 삶을 지속해야 하” 하며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끔찍한 행위에 연루되지 않게끔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 “과거의 공포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염려하면서, 인간이 품고 있는 악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문해” 보아야만 한다.²⁾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는 탄탄한 원작을 기반으로 타인의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물음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날카롭게 접근해 나간 작품임은 틀림없다. 때때로 지나치게 잔인한 장면의 연출이 논란이 되기는 했으나 기존의 텔레비전드라마에서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연출적 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이 작품은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극도의 절망적 전망은 현재 우리 사회가 봉착한 구조적 모순에 대해 우리 자신이 느끼는 무력함과 냉소, 체념적 태도만을 반영할 뿐, 그로부터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2) 애덤 모틴, 변진경 역, 『잔혹함에 대하여-악에 대한 성찰』, 돌베개, 2015, 219면.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정이도 극본(김용키 원작), 이창희 연출, <타인은 지옥이다>, 총 10부작, OCN, 2019.08.31.~2019.10.06.

김용키, <타인은 지옥이다>, 《네이버》, 2018.03.10.~2018.12.26. 완결

김용키, 『타인은 지옥이다』1-3, 위즈덤하우스, 2019.

2. 단행본 및 논문

김광철·장병원 엮음, 『영화사전』, media2.0, 2004.

신상영·조권중, 「서울의 범죄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정책리포트』 161, 서울연구원, 2014.

애덤 모턴, 변진경 역, 『잔혹함에 대하여-악에 대한 성찰』, 돌베개, 2015.

이봉조, 「최저주거기준과 예외상태에서의 생명권 박탈」, 『도시와 빈곤』116호, 한국도시연구소, 2020.

장 폴 사르트르, 지영래 역, 『단힌 방, 악마와 선택 신』, 민음사, 2013.

정이도, 『타인은 지옥이다 대본집』, 위즈덤하우스, 2019.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009.

진미윤·최상희, 「고시원의 공급, 운영관리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주택연구』 Vol.26 No.3, 한국주택학회, 2018.

테리 이글턴, 오수원 역, 『악-우리 시대의 악과 악한 존재들』, 이매진, 2015.

3. 기타 자료

<“타인은 가장 두려운 존재… 당신은 누구의 지옥인가?”>, 《조선일보》, 2018.04.27.

<유엔 특보 “한국 정부, 주거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식해야”>, 《연합뉴스》, 2018.05.23.

<고시원은 어떻게 대도시 ‘최후의 주거지’로 변해갔을까>, 《경향신문》 2018.11.11.

<유엔 특보 “한국 홈리스 26만 추정…주거안정 대책 마련해야”>, 《MBC》,

2019.03.12.

「고시원, ‘집’ 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방’」, 『월간복지동향』
243,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9.

〈[SC초점] 화제성 ↑vs시청률 ↓..마니아 저격 ‘타인은 지옥이다’의 딜레마〉, 《스
포츠조선》, 2019.09.16.

〈[인터뷰] 만화가 김용키 “조심 안 하면 나도 남에게 지옥이 될 수 있다“〉,
《매일경제》, 2019.09.29.

〈[2020 고시원 탐사기][단독]①강남엔 택배원, 영등포엔 외국인...’서울 고시원
지도’〉, 《경향신문》, 2020.10.07.

Abstract

Everyday fear, hell without an exit

—Focused on *Taineun Jiokida*

Baek Soyoun

Taineun Jiokida produced by OCN is based on the original webtoons that has been verified for its quality of work and popularity, so it became a hot topic even before the drama aired. It received positive reviews after airing interesting scripts, actors' outstanding acting skills and various directing attempts. Unlike previous OCN dramas, however, the film captures the process of brutal murder itself. In other words, The drama can neither reveal the motive for the murder nor punish the criminal. Unlike the original, the drama reflects the real problems of Korean society, but this sense of problem does not lead to a hopeful attitude to improve social problems. The people in this drama inevitably don't trust each other and are hostile and cannot form any solidarity. For humans who have to live with others, the perception that others are hell shows that their fate is trapped in hell. In this view of the world, the specific problems of reality are consequently concealed. This is because only the existential and abstract problem of others being hell remains. Criticism of national, power and social issues that make happy communities or good lives impossible in the drama leads to despair that nothing can be changed. The true cruelty of this drama, *Taineun Jiokida's* there.

key-words : Taineun Jiokida Television drama, OCN, webtoon, others, daily fear, hell without an exit

접 수 일: 2020년 11월 10일

심사기간: 2020년 11월 16일~2020년 11월 27일

게재결정: 2020년 12월 15일